

페퍼스 이경수 감독대행 체제로 시즌 완주할 듯

17연패 등 최악의 시즌 속 새 감독 선임 뚜렷한 움직임은 없어 V리그 7일부터 4라운드 시작... 1위 현대건설과 19번째 경기

광주 AI페퍼스가 이경수 감독대행 체제로 올 시즌을 완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페퍼스 구단은 지난해 11월 김형실 창단 감독이 사퇴하자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차기 감독을 물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감독까지 후보군에 포함했으나 현재 국내 감독으로 입장을 선화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AI페퍼스 관계자는 5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시즌 중 감독 선임 문제를 차분히 생각하고 있다. 반드시 시즌 중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는 목표는 없다. 지금은 시즌을 정상적으로 치러내는 게 과제"라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즌 중에 감독이 선임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이경수 감독 대행체제로 시즌을 마칠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페퍼스로서는 새 감독을 선임해도 뚜렷한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즌에 전체 6라운드 36개임을 치르는데 7일이면 4라운드에 접어들게 된다.

페퍼스는 지난해 팀이 10연패에 빠지며 김형실 감독이 전격 사퇴하고 이경수 감독대행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

이경수 감독대행도 17연패에 빠졌으나 지난해말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23시즌 도드람 V-리그' 3라운드 여자부 경기에서 페퍼저축은행이 한국도로공사를 세트스코어 3-1(25-21, 22-25, 25-23, 25-16)로 완파하며 연패에서 빠져나왔다.

페퍼스는 올시즌 최악의 시련을 겪고 있다. 지난해 창단 첫해 3승을 올렸던 패기와 기세를 찾기 힘들다. 미들블로커 하혜진이 어깨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확정됐고 아웃사이드 히터 지민경과 신인 최대어 미들블로커 염어령이 무릎 부상 및 수술로 인해 코트에 서지 못하고 있다. 단, 한 경기도 완전 체로 경기를 치른 적이 없을 정도.

김형실 전 감독의 표현처럼 '전 구단이 페퍼스에 지지 않으려는 연대'가 이뤄지고 있어 가뜰이나 전력이 약한 페퍼스를 짓누르고 있다.

한편, 극적으로 연패에서 탈출한 페퍼스는 7일 수원에서 여자부 1위 현대건설과 시즌 19번째 경기를 치른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이경수 감독대행

'백신 미접종' 조코비치 미국 큰 대회는 못 나가

전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올해 호주에는 입국했으나 미국 땅은 계속 못 밟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규제를 오는 4월 1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3월 미국에서 열리는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인디언 웰스 마스터스와 마이애미 오픈에 조코비치의 출전이 불가능해졌다고 5일(한국시간) 보도했다.

3월 6일 열리는 인디언 웰스 마스터스와 20일 시작하는 마이애미 오픈은 4대 메이저 대회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랭킹 포인트가 주어지는 'ATP 마스터스 1000'급 대회다.

조코비치가 계속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들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는 현재 단식 랭킹 5위까지 내려온 조코비치의 순위 상승에 작지 않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현재 조코비치는 시즌 개막전인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부터 16일 개막하는 메이저 대회 호주오픈까지 이어지는 호주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조코비치는 지난해 1월 호주오픈 출전을 위해 호주에 입국했다가 백신 접종 문제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한 바 있다.

그러나 호주가 지난해 7월 백신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11월에는 3년 입국 금지 처분도 완화하면서 조코비치는 약 2년 만에 호주 코र्ट로 복귀할 수 있었다.

조코비치는 호주 입국 뒤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1년 전 겪은 일은 가끔은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기억이지만, 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코비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연패를 한 것을 포함해 호주오픈에서 통산 9차례 우승, 이 부문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경 효과' 흥행 강타... 여자배구 전성시대

전반기 총 관중 23만8000명 여자부에 15만여명 몰리며 TV 시청률도 남자부 압도

프로배구 2022-2023시즌 전반기 총관중이 23만 8084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5일 발표한 전반기 관중·기록 자료를 보면, 남녀 14개 구단이 팀당 3라운드를 마친 3일 현재 23만8084명(경기당 평균 1890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다.

시즌 관중 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2020시즌의 약 82% 수준을 회복했다.

남자부와 여자부 경기의 관중·TV 시청률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남자 경기 관중은 8만8869명, 여자 경기 관중은 14만9215명으로 여자부 경기 관중 수가 6만명 이상 많았다.

2019-2020시즌에만 해도 남자부 경기가 여자부보다 약 4만명 관중을 더 모았지만, 2020-2021시즌부터는 완전히 뒤집혀 여자부 경기가 더 큰 사랑을 받았다.

2020-2021시즌을 앞두고 김연경(35-흥국생명)이 국외 생활을 접고 11년 만에 국내에 복귀했고, 여자 배구대표팀이 도쿄올림픽 본선에 진출하면서 여자 배구 전성시대가 열린 덕분이다.

배구연맹이 집계한 여자부 최다 관중 경기 1~5

위가 모두 김연경을 앞세운 흥국생명의 홈 경기였다.

남자부 흥행 1위 구단은 서울 장충체육관을 안방으로 쓰는 우리카드다.

우리카드와 삼성화재가 격돌한 2022년 12월 17일 경기에는 이번 시즌 남자부 최다 관중인 3천112명이 장충체육관을 채웠다.

이번 시즌 V리그 전체 평균 TV 시청률이 0.82%를 기록한 가운데 여자부 경기가 평균 1.05%로 남자부 0.58%를 크게 앞질렀다.

작년 성탄절에 열린 여자부 KGC인삼공사와 현대건설의 경기가 전체 통틀어 최고인 1.61%를 기록하는 등 여자부 평균 시청률 톱 5경기는 1.39% 이상의 시청률을 올렸다.



미국의 미케일라 시프린이 4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2022-2023 FIS 월드컵 알파인 여자 회전에서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프린 월드컵 스키 81승...최다 우승 기록 '-1'

미케일라 시프린(28-미국)이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통산 81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시프린은 4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2022-2023 FIS 월드컵 알파인 여자

회전에서 1. 2차 시가 합계 1분 36초 42로 우승했다. 2위 페트라 플로바(슬로바키아·1분 37초 18)를 0.76초 차로 제쳤다.

이로써 시프린은 이번 시즌 7승, 개인 통산 81승을 달성했다.

81승은 FIS 월드컵 알파인 부문에서 여자 최다 승 기록인 린지 본(은퇴·미국)의 82승에 1승 모자란 기록이다.

남녀를 통틀어 최다 우승 기록은 잉에마르 스텐 마르크(은퇴·스웨덴)의 86승이다.

시프린은 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회전 경기에서 82승에 도전한다.

시프린이 한 시즌에 7승을 거둔 것은 2018-2019시즌 17승 이후 4년 만이다. /연합뉴스

'당구 여제' 김가영 LPBA 새 역사 썼다

5회 우승으로 최다승 등극

'당구 여제' 김가영(하나카드)이 통산 다섯 번째 정상에 오르며 여자 프로당구(LPBA)에 새 역사를 썼다.

김가영은 4일 밤 경기도 고양시 소노캡고양에서 열린 NH농협카드 챔피언십 LPBA 결승에서 김예은을 상대로 풀세트 접전을 벌인 끝에 세트 점수 4-3(11-8-5-11 11-9-4-11 11-7-7-11 9-5)으로 이겼다.

지난 2019-2020시즌 6차 투어에서 처음으로 LPBA 우승을 따냈던 김가영은 이후 4시즌 동안 왕중왕전을 포함해 5번째 우승을 일귀 우승 횟수에서 임정숙(크라온해태), 이미래(TS 샴푸·이상 4회 우승)를 제쳤다.

이번 시즌은 4차 투어인 휴온스 챔피언십에 이어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한 김가영은 우승 상금 2천만 원과 랭킹 포인트 2만 점을 추가했다.

이로써 상금 랭킹도 스롱 피아비(갑보디아·블루원리조트)를 제치고 시즌 1위(4675만원)로 올라섰다.

김가영과 김예은은 결승전마다 서로 한 세트씩 주고받는 명승부를 펼쳤다.

세트 점수 3-3으로 맞선 7세트 김가영은 7이닝까지 5-4로 근소하게 앞서가다 8이닝과 9이닝 동안 1득점에 그친 김예은의 공타를 틈타 2점을 추가했다.

7-5 리드에서 맞은 10이닝 공격에서는 2점을 채워 3시간간의 혈투를 매듭지었다.



통산 5회째 우승을 차지한 김가영. <PBA 제공>

김가영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승해서 너무 좋다"면서 "최근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크게 헤드된 게 없다. 이번 우승 트로피는 늦었지만, 할머니 영전에 바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열린 PBA 8강전에서는 '당구황제' 프레데리크 쿠드롱(벨기에·엘렉저축은행)이 단 7이닝 만에 45점을 뽑는 류갑각을 앞세워 필리프스 카시도코스타스(그리스·하나카드)를 잡았다.

이날 쿠드롱은 에버리지 6.429를 기록하며 종전 자신의 최고 에버리지인 3.550을 훌쩍 뛰어넘는 기록을 새로 세웠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아바타: 물의 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2관	아바타: 물의 길
3관	아바타: 물의 길, 3000년의 기다림
4관	영웅
5관	스위치
6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9관	아바타: 물의 길,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극장판 보로와 친구들: 바이러스 없애줘!
7관	세네카를 스위치, 젠들맨
8관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더 퍼스트 슬램덩크, 젠들맨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2023 신년음악회

GWANGJU SYMPHONY ORCHESTRA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70회 정기연주회

2023 신년음악회

일시 : 2023-01-17(화) 19:30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524-5086